

# 완주군, 재해예방 1428억 투입

## 올해까지 3년 동안 삶의 질 향상 기여

완주군이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재해예방을 위해 1428억원을 투입,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일 완주군은 지난 2014년 461억원, 지난해 507억원에 이어, 올해도 460억원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사업비로 지방하천 정비 4개소(6.6km), 소화천 정비 11개소

(3.2km),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대처한 결과, 350억원 규모의 전주천 발원지 슬udge처리 정비사업과 60억원 규모의 구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공모 확정됐다. 또한 아름답고 안전한 소화천기꾸기 공모에도 당선됨으로써, 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에도 선정됨에 따라, 3년간 매년 10~14억원을 지원받아 안전사고 감축과 범죄 예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안전 인프라 확충의 기반도 다져나가고 있다.

이밖에 지난 5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재난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500만원을 활용, 무인항공기(드론)를 구입해 재난 사전대비와 재해예방 사업장 관리 등 선진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국민의 안전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기반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안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안전문화 운동 등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클린 축산농장 관리 앞장

## 분뇨·방역분야 27억 지원

진안군은 작지만 강한 축산업 조성과 청정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개 분야(분뇨 및 방역분야)에 27억원을 지원해 클린 축산농장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전북도민의 깨끗한 용담읍이 위치한 최상류 지역으로 축산업 악취 문제, 분뇨 환경오염, 방역문제에 민감한 지역이며 고질적인 축산분뇨는

수질과 대기환경 오염원의 주범으로 환경 및 축산업 발전에 저해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올해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양돈농가의 '분뇨 증발 및 농축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분뇨 발생 최소화화 고효능 액비 생산, 악취 발생량 감소가 기대되며, 돈사 내 악취방지를 위해 선진 사업장 방문 등 농가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 먹이는 악취저감제

지원, 양돈·양계농장 악취저감대책 추진, 축산농장 경관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의 악취문제,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용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농가의 자정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클린 축산농장 관리에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 폭염 속 '무더위 쉼터' 2곳 방문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5일 폭염 속 무더위 쉼터 2곳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 격려에 나섰다.

이 군수는 관내 78개소 무더위 쉼터 가운데 진안을 주공차 마을회관 및 상전면 내송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폭염 취약시간에 야외활동 자제 등을 당부하였다.

진안군은 고원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일일 최고기온이 2~3도 낮아 여름 나기에 쾌적한 지역이나 올해는 유난히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폭염이



가슴을 부리고 있어 진안군도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에 군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과·소 T/F팀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막바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김윤섭 부군수, 건설현장 근로자 격려

장수군은 올 여름 지속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윤섭 부군수는 지난 5일 폭염 취약건설사업장을 방문해 쿨 수건을 전달하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염특보 시 건설현장 야외 장시간 근무를 자제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수분(염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군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관내 무더위쉼터 3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폭염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농아인 함양서 하계 수련회 개최

전라북도농아인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이용원)는 지난 5일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이날 수련회를 통해 더위에 지친 회원들이 더위로 식히면서 함께 어우러져 웃음이, 봄으로 말해오,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양목 농아인 회원(62)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대화상대가 한정되어 있는 농아인들은 평생시 외로움으로

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회원들간의 많은 대화가 위트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장애인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지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 받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해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하계수련회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소통하고 위로받는 좋은 시간이 되었

다"며 "앞으로도 농아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회원들간의 화합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각 장애인협회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여 좋은 환경에서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갯잎, 안산시민들 식탁에~

## 반딧불갯잎연구회 - 안산농협, 농산물 판매 협약체결

무주군은 부남면 무주반딧불갯잎연구회(회장 김호연)가 지난 4일 경기도 안산농협(조합장 박경식)과 농산물 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판매 가격 없는 농산물 생산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의 우수한 갯잎 품질과 안산 지역의 두터운 소비층이 바탕이 돼 그 파급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협약서에는 ▲부남면에서 생산된 갯잎 100%를 안산농협이 구매한다는 내용과 ▲가격 지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부남면에서 생산하는 다른 작물들도 함께 구매하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은 "소비지역과 생산지역이 직접 협약을 체결하면 유통 과정을 최소화해 유통비를 절감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신선도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다"며 "안산농협이 안정적인 판로가 돼 무주군 농가들은 생산에 집중하고 안산 시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무주반딧불갯잎작목반 김호연 대표는 "맛도 품질도 우수한 갯잎과 농산물을 생산·공급해 무주반딧불농산물을 믿고 찾아주시는 마음에 꼭 보답을 할 것"이라며 "청정무주에서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군 부남면 반딧불갯잎연구회는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2ha 면적에서 연간 65톤을 생산,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무주군은 지난해 갯잎 시설하우스 7동을 지원해 동절기 갯잎재배로 인한 소득창출에 기여했으며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版 '피서의 법칙' 인기

## 운주면과 17번 국도·고산면 오밀조밀 피서지 등

완주군 공식블로그에 실린 '완주版 피서의 법칙'이 블로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완주군의 다양한 피서지를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 '완주군 곳곳의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를 권역별로 엮어 '완주版(판) 피서의 법칙'을 연재하고 있다.

제1탄은 '운주면과 17번 국도' 편으로, 운주의 '청룡천', '금교당계곡', '옥계동 계곡' 등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하며, 근처에 대표적인 '대둔산도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물놀이, 산놀이가 동시에 가능한 휴가지이다.

운주면에는 정복 최초의 커피농원과 '두부만들기, 콩버거 체험'이 가능한 완창마을에서 가족나들이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완주군 운주의 계곡은 산속 깊이 위치한 일반적인 마을 앞을 지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근처에 음식점, 쉼터가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운주의 1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시원한 물놀

이, 산놀이, 체험놀이까지 가능한 1석 3조의 휴가지이다.

2탄으로는 '여름 힐링 최적지 고산면- 오밀조밀 피서지'에는 다채로운 놀거리 체험거리가 소개되어 있으며, 3탄에는 '선녀가 노니는 계곡 동상면'이 소개되어 있다.

만경강 최상류에 위치한 고산면 소항리 '참포마을'을 비롯해 '고산자연휴양림', '고산미소시장과 전통시장', 동상의 '운장산, 연석산', 대이저수지, 동상저수지' 등 아름다운 자연과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 보물 만나볼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완주版 피서의 법칙'을 통해 청정자연으로 유명한 완주군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는 물론 숨겨진 완주군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版 피서의 법칙'은 완주군 공식블로그(http://wanjublog.com)에서 볼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 스테마박물관 전주 시내버스 운행

술의 역사와 제조방법 등을 총망라한 완주군의 술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오는 13일부터 완주군 구이면 소재 대한민국 스테마박물관에 전주 시내버스 운행이 개시된다.

전주시와 완주 구이면 지역을 연결하는 기존 944번, 946번, 947번 등 총 3개 노선이 덕진공원과 한옥마을을 거쳐 대한민국 스테마박물관을 1일 편도 5회 연장 운행한다.

이번 버스노선 조정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한옥마을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관광의 기틀이 마련되며, 완주군 대표박물관인 스테마박물관을 관람하는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용객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주, 전주시

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주시역과 박물관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이 전무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강신영 교통행정팀장은 "이번 버스노선 조정은 구이면 지역주민, 전주시와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버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 졌으며, 현재 추진중인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이용자 중심의 노선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테마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작년 10월 15일 개관하였으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힐링-에듀테인먼트가 가득한 공간으로 이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군, 경로당 조명 LED로 교체

무주군은 6개 읍면 224개 경로당의 조명을 LED로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효율 조명을 사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군에서 사업비 1억여 원을 투입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인력과 설치를 지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조명을 설치하면서 각 경로당의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배선상태와 감전사고 가능여부 등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김진태 산업행정 담당은 "LED 조명은 전력 사용량이 적어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형광등보다 밝아서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 팀들과 함께 움직이며 조명교체와 안전점검에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여성단체협 천연염색 체험

장수군은 지난 5일 계남면 장안문화예술회관에서 장수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염색 기법에 대한 강의와 천연염료인 쪽염색을 통한 '나비'의 스텀 만들기 체험이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가정폭력 방지법과 인식개선의 기회를 마련했다.

김옥자 회장은 "이번 체험으로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사랑으로 공헌하는 물론 여성단체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쿨맵시 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지난 5일 장수터미널에서 쿨맵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관내 그린리더와 공무원 등 20여명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과 연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쿨 맵시로 2℃로 시원한 여름' 홍보물을 배부하며 쿨맵시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방온도 26~28℃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또한 그린리더 설치하기,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을 홍보하며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는 이동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증한다"며 "쿨맵시 실천으로 온실가스 절감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부귀면 모정 좌담회 열려

진안군 부귀면(면장 이해석)은 지난 7월 27일부터 3주간 관내 38개 마을을 방문하여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정부 3.0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청정 진안을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 3NO운동의 정착화에 대해 면민들에게 설명하고 면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최근 가뭄으로 인해 물이 부족하다는 오산, 적천마을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급수차와 양수기를 지원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었으며, 부귀면 보건지소 직원이 함께 하여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사와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등 현장 행정을 실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